

“지역경제 새로운 희망찾기 앞장”

2020년 지역경제인에게 듣는다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안정·상생 노사관계 구축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

청년·신증년 일자리 창출
기업 애로 해결에 최선

금융조찬포럼 내실화
CEO교류의 장 역할



“새해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모두 노력해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지고 특히 광주경총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 회장은 12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포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이 둔화됐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고용악화와 함께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총선 일정 등으로 앞으로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청년층과 40대의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제조업 경기도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도시철도2호선,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을 기대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광주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와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글로벌모터스 착공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며 “특히 인공지능(AI) 산업기반을 통해 미래 먹거리와 4차 산업혁명의 선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내외 환경과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한 다양한 새해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과 경제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및 의정활동을 전국 경총과 더불어 활발히 전개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 노동계와 소통 협력해 안정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전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청년층과 신증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업 CEO 및 인사관리자의 교류 확대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 간담회 등

정책회의를 확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가교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 경제단체 주최 국내 최장수 조찬포럼으로 인정받은 광주경총의 ‘금융조찬포럼’의 활성화와 방안도 모색한다. 지난 1999년 6월 1일 시작한 광주경총 금융조찬포럼은 매주 금요일 아침 진행되는 우리나라 명품포럼으로 기업 CEO와 지역 노사민정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경영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최 회장은 “전직 대동령들이 후보시절 강연을 하는 등 전·현직 국무총리를 비롯 장관 등 유명인사와 각계각층의 최고 전문가들이 경제, 경영, 노동, 건강,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포럼에 초청돼 강연을 이어오고 있다”며 “올해 1500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금융조찬포럼’을 기업이 혁신성과 미래를 대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CEO의 교육과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길용현 기자

채화석 전 경영지원본부장 광주상의 전무이사에 임명



광주상공회의소는 채화석 전 경영지원본부장을 신임 전무이사로 임명하는 등 13일자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채화석 전 경영지원본부장을 신임 전무이사로, 이명수 전 협력사업본부장을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처장(임원대우)으로 임명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3년 1월12일까지 3년이다. 또 전은영 경영지원본부장은 협력사업본부장으로 승진했으며 김경호 전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처장은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채 신임 전무이사는 여수 출신으로 여수고와 조선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1992년 광주상공회의소에 입사해 회원사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채 전무이사는 “광주상공회의소가 종합경제단체로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내실있는 사업 추진으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해 회원업체와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미애 기자

전남축협 하나로마트 돼지고기 할인

전남도는 설을 맞아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소비 부진 등으로 돼지산지가격이 하락, 큰 어려움을 겪는 양돈농가 경영 회복을 위해 전남 12개 축협 하나로마트에서 23일까지 돼지고기 할인판매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돼지고기 할인판매는 12개 축협 하나로마트 정육매장에서 이뤄진다. 삼겹살과 목살 등을 시중가격보다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돼지고기 산지 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 긴급 지원 및 농·축협 돼지고기 긴급 구매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 ▲광주·전남교육청에 돼지고기 학교급식 제공 확대 협조 요청 ▲도내 전역 돼지고기 시식행사 개최 ▲도청 공무원 돼지고기 사주기 운동 등 역량을 집중해왔다. /서미애 기자



농협전남지역본부장과 경제사업부 직원 30여 명은 나주 남평읍에 소재한 친환경 청년농업인 농장에서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69만6천명

광주국세청, 28일까지 신고

지난해 2기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6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28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실적이다. 법인사업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서미애 기자

전남농협, 농축산물 판매확대 결의

전남농협 임직원들이 청년농업인 농가에서 농산물 수확 작업을 하며 올해 농축산물 판매 확대 추진을 결의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김석기 본부장과 지역본부 경제사업부 직원 30여 명

은 나주 남평읍에 소재한 친환경 청년농업인 농장에서 ‘올해 농축산물 3조 8,000억 원 판매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신소득 작물 개발, 첨단기술기반 방역체계 구축 등 “전남의 미래농업”을 선도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기틀을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행사 이후 농축산물 산지유통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청년농업인 농장에서 한라봉 수확과 상품화 작업도 했다. /서미애 기자

■ 로또(893회)

당첨번호	1, 15, 17, 23, 25, 41 보너스10
등위	당첨금액
1등	2,377,433,625원
2등	61,485,353원
3등	1,687,720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 연금복권(445회)

등위	당첨번호	당첨금액
1등	6조	946769
	6조	810317
2등	6조	946768
	6조	946770
	6조	810316
	6조	810318
3등	각조	780948
4등	각조	53696
5등	각조	217
6등	각조	67.25
7등	각조	0.9

연극 장수상회

은 동네가 바라는 첫사랑이 시작된다!

이순재

신구

손숙

박정수

2020.2.1(토)~2(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 (주)남도일보 주관 | (주)극단코스모스
문의 | 1688-3820 예매 | 인터파크.티케팅. Yes24